

경영저널

지역 명소 소개 구미 금오산
Cover Story 남유진 구미시장
사회 중장년층 공무원 시험 증가
Hot Issue 우리나라 성인 30%는 '비만'
포커스 리딩 '김영란 법'의 명암
기업 탐방 아임 드론
음식 명가 신짜오
스포츠 유망주 김지연 선수(골프)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54th
2016 9



- 06 **지역 명소 소개**
구미 금오산
- 08 **통계로 본 경북**
경북 인구, 일 년간 6천여 명 증가
- 10 **포커스 리딩**
김영란법의 명암
- 12 **커버스토리**
남유진 구미시장
“우공이산의 자세로 지역발전에 매진할 터”
- 16 **사회**
중장년층 공무원 시험 증가
- 18 **Hot Issue**
우리나라 성인 30%는 ‘비만’
- 20 **칭찬합시다**
김대웅 서구청 교통행정 담당
- 22 **이슈 돌보기**
혼인, 출생아수 사상 최저
- 24 **정책제안**
녹색환경도시 구미를 위한 정책제안
- 26 **정책**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방식, 일정 확정
- 28 **정책제안**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Contents | www.경영저널.com September 2016

9



- 30 **법률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32 **현장출동**
원룸 비밀번호 노출, 범죄 위험
- 34 **음식 명가**
신짜오
- 36 **지자체가 뚝다**
달서구청 결혼장려팀
- 38 **청호(靑湖)칼럼**
- 40 **기획**
성범죄 예방, 올바른 성인식이 해답
- 42 **스포츠 유망주**
김지연 선수(골프)
- 44 **기업 탐방**
아임 드론
- 46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48 **Economy**
경북도, 추석 中 運전자금 3,200억 지원
- 49 **행정**
대구시, 지방공기업 평가 최우수
- 50 **경북 문화소식**
- 53 **지역 소식**

경영저널 통권 제54호

발행인·인쇄인	이진구
편집장	홍순대
취재	이혁, 도효진
사진	김원현
편집디자인	배은정
편집위원	윤정현, 민경량, 한혁동
인쇄처	신흥인쇄(주)
발행처	http://www.dgnews.co.kr
본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등록번호	경북, 라 06418
창간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8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90,000원
정가 : 8,000원
예금주 :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 용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대구·경북·시·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 k_journal@daum.net
전화 : 053) 766-1368~9 FAX : 053) 766-0379

금오산



황금 까마귀가 태양을 향해 날아다녔다는 전설을 지닌 금오산은 우리나라 제1호 도립공원으로, 평지로 둘러싸인 가운데 홀로 산군을 이루고 있어 산을 찾는 이들에게 사계절 내내 천혜의 절경을 선사한다. 등산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과 유적, 폭포와 기암들은 등산객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소리 없이 치유해주며, 산기슭에는 야영장과 쉼터, 케이블카까지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로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고, 구미역에서 도보로 10~15분 거리이면 도착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명산(名山)으로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처서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다다른 지금, 금오산은 전국의 등산객들을 맞이하며 제 매력을 한껏 뽐내고 있다.

경북 팔경 중 하나인 금오산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의 경계인 동경 128.18° 북위 36.05°에 위치한 금오산은 총 면적 37.29㎢에 높이는 약 해발 976m로, 산 정상은 현월봉과 약사봉, 보봉으로 이뤄져 있고 정상 부근은 하늘로 비상하려는 새의 모습 또는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 모습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금오산은 경북 팔경(영남 팔경) 중 하나로 손꼽혀 1970년 6월 한국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여러 절경 중에서도 기암괴석과 계곡, 폭포의 조화를 담은 경관이 가장 뛰어나 오형돌탑, 명금폭포 등은 추천 등산코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특히, 해발 400m에 위치한 명금폭포는 산중턱 벼랑에서 떨어지는 27m의 거센 물줄기로 등산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금오산 최정상인 현월봉 역시 달이 걸린다는 이름의 뜻처럼 그림 같은 조망을 자랑한다. 이처럼 빼어난 경치 덕에 예전부터 수많은 시인들의 발길이 이어져왔고, 중국의 오악 가운데 하나인 숭산(崇山)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해서 고려시대에는 남송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명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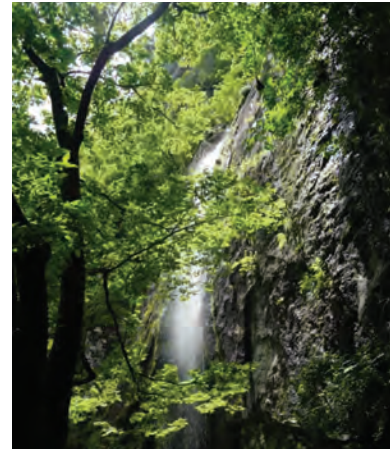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표 명산인 금오산은 그 명성에 걸맞게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명소들이 많다. 우선, 금오산 정상 부근에는 고려말 왜구의 침략에 대비해 쌓았다는 길이 2km의 금오산성이 있다. 금오산성은 금오산의 정상부와 계곡을 감싸 내·외성 2층으로 돌로 쌓아 만든 산성으로, 지금은 내·외성의 문터, 적이 알 수 없게 만든 작은 성문인 암문의 형체, 건물터들이 남아있어 가족 단위 등산객에게 자녀 교육장소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금

오산 저수지 부근에는 1768년(영조 44) 고려 말의 충신이자 성리학자인 길재(吉再)의 충절과 유덕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채미정(採薇亭), 일명 금오서원이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 금오산 정상 절벽의 약사암은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해 참선수도를 했던 천년 고찰로, 약사암 약사전에는 봉안된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있다. 이 불상은 수도산 수도암, 황악산 삼성암의 약사불과 함께 3형제 불상이라고 불리며 세 불상이 함께 방광(빛을 발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할딱고개부터 현월봉까지 '고진감래'

금오산을 오르는 등산로는 1코스부터 4코스까지 총 4가지가 있으며, 금오산 탐방 안내소를 출발점으로 해서 채미정-해운사-대혜폭포-할딱고개-오형돌탑-마애석불-약사암-현월봉 코스로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탐방안내소부터 현월봉까지 등산할 수도 있지만 출발점 부근에서 해운사 입구까지 케이블카를 타며 절경을 감상하는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대혜폭포를 지나서부터는 '할딱고개'라고 불리는 가파른 등산로가 시작된다. 금오산 등반 코스 중 가장 숨이 찬 지점인 할딱고개는 현월봉까지 가는 최종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가파른 산세인데다가 끝없이 이어진 계단들을 보고 있노라면 숨이 저절로 턱턱 막힌다. 하지만 중간 중간 등산객들을 응원하는 짙은 녹음과 더위를 잊게 해주는 도선굴 등을 감상하며 인내하다 보면 어느덧 현월봉에 도착하게 되고, 금오산과 구미시의 아름다운 전경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등산 후 즐기는 '명품 힐링'

금오산은 수많은 명소만큼이나 휴게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다. 금오산도립공원은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어 등산 후 지친 몸을 쉬어갈 수 있다. 야영장 내에는 숲길 산책로를 비롯한 파고라, 벤치, 야외물놀이장 등이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텐트를 가져올 경우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다양한 맛 집들이 등산객들을 기다리고 있어 입맛에 따라 골라먹을 수 있다. 등산 후 시원한 국수나 파전, 도토리묵 등을 안주로 가볍게 즐기는 하산주(下山酒)는 금오산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별미다. 이 외에도 금오산도립공원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는 숙박정보관 정보를 클릭하면 금오산 인근 숙박업소 및 맛 집 4~50곳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금오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결상태 유지, 방문객 불편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경북 대표 명산인 금오산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경북 인구, 일 년 새 6천여 명 증가 올해 2/4분기 도내 인구 275만3천여 명



경상북도 인구가 김천 혁신도시 개발, 도청 신도시 등 경제적인
순풍으로 인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6월 말 기준 주민등록총인구가 2,752,515명으로,
지난 1년 사이 6천여 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도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2,702,385명, 외국인 50,130
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6,416명(0.23%) 증가했으며, 세
대수는 1,176,023세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873세대(1.37%) 증가
했다. 인구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김천시의 혁신도시 개발, 경북
도청 이전과 신도시 개발 및 경산시의 산업단지조성을 통한 고
용창출 등 권역별 핵심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시
화되면서 인구증가를 직접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천혁신도시 4,675명(3.37%), 경북도청 신도
시 예천군 746명(1.64%), 경산시 3,000명(1.14%) 등 경제적으로
활력이 돌고 있는 10개 시군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
다.

내국인의 인구구조는 연령별로 유년인구(0~14세)는 12.46%이
며,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69.57%, 노인인구(65세이상)는
17.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는 1,879,99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8명이 증

가했으며, 시군별로 구미시(76.01%), 포항시(73.59%), 경산시
(72.8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인인구는 485,50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31명이 증가했으
며, 시군별로 의성군(36.35%), 군위군(35.66%), 영양군(32.95%)
순으로 고령화율이 높아 내국인의 고령화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경북형 복지정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등록외국인은 50,130명으로 외국인 인구가 많은 곳은 경
주시 9,299명, 경산시 7,940명, 구미시 5,609명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24.54%, 중국 13.12%, 한국계중국인 10.02% 등 아시아계
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의 인구 증가는 그간 지속적
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시군별로 차별화된 균형발전정책의
결과”라면서, “경북 발전을 위해 힘 쏟았던 노력들이 실효를 거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권역별 특화된 개발사업과 적극적인 투자유
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는 살기 좋은 경
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효진 기자

김영란법의 명암



지난 7월 28일 우리나라 정치계에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합헌 판결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던 부정부패를 청산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농축산업계를 비롯한 음식점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여야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오는 28일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를 주목적으로 하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

을 받으면 1천~3천 만원의 과태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다만, 적용 대상 가족 범위는 과잉 입법 등의 우려를 고려해 배우자로 한정된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 등으로 약 400만 명이 대상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경우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할 경우 부정 청탁에서 예외 대상이 되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특히,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식사의 경우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 받을 시 과태료가 부과돼 일명 '3.5.10' 원칙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 공정성, 투명성 강화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찬성 측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 투명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다. 청탁, 로비 등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 암묵적인 관례로 용인되던 것들을 뿌리 뽑을 수 있기 때문. 덕분에 김영란 법 관련 기사 댓글란에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용 일자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찬성을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모든 이에게 형평성에 맞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고 공립학교 교사만 금품에 관한 처벌을 받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문제가 되지 않던 현재 실정을 확실히 개선하는 법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찬성 의견들 역시 언론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필요하다. 뇌물수수, 비리 등 한국의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5.10’ 원칙 완화와 관련해서는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약 60%가 “원안대로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농축산업, 음식점 등 관련 업체 ‘울상’

김영란법이 논란이 되면서부터 농축산업 및 음식점 등 ‘3.5.10’ 원칙 적용 대상과 관련된 업체들은 걱정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주요 관공서 및 언론사 주변 업체 대부분이 매출 하락을 우려하거나 이미 하락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일찌감치 폐업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 전망’에 따르면 법 적용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 위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어업 생산액이 평균 8.4~10.8% 감소할 것이며, 특히 경북도의 경우 생산액 감소만 1천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산유통정보센터 한우 거래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전국 평균가격은 수송아지 407만원, 암송아지 334만원이었지만, 지난달 기준 수송아지 388만원, 암송아지 299만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에 경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영향 최소화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농축수산물 분야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 발굴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영란법, 아직 풀어야 할 숙제 많아

이처럼 김영란법을 두고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부정청탁 자체만을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별도의 입법례는 거의 없다”면서, “원안에 명시된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교원과 언론계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 교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민간언론인은 공무원이 아니며 또 다른 관점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도 아닌데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공직 성격을 갖는 민간영역 가운데 왜 언론은 적용대상이 되고 변호사나 의사 등은 되지 않는지 비교집단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찬반 의견을 두고 현재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반면, 오는 28일 김영란법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혁 기자

| 인터뷰 |
남유진
구미시장

Profile

1953년 4월 7일 생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 공공정책대학원 수료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겸임교수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 공기업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수석실 행정관
(現)구미시장(민선 4, 5, 6기)
(現)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우공이산의 자세로 지역발전에 매진할 터”

경북 대표 산업도시인 구미시는 최근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 공단확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을 통해 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했고, 기업사랑본부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업애로사항을 대폭 해결하면서 대기업 유치에 앞장서는 등 산업동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도시하면 떠오르는 삭막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 곳곳에 녹지 공간을 조성해 녹색환경도시로서의 새 출발을 시작했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수상레포츠체험 시설 및 여가 공간을 확충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Cover Story에서는 취임 10주년을 맞은 남유진 구미시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구미시장 취임 10주년이다. 그간의 소회는?

A 지난 2006년 취임 이후 10년 동안 구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어느 한 분야도 빠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부분, 구미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형 프로젝트들이 다 잘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모두 43만 구미시민과 1,600여 명의 공직자들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향후 50년, 100년 후 구미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그간 지지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Q 취임 후 10년 동안 구미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A 한 마디로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단의 면적도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만큼 확장됐고, 주요 먹거리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미시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녹색환경, 도시디자인 등 외적으로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구미시는 이제 공단과 굴뚝으로만 대표되던 ‘회색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녹색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산업, 경제는 기본이고 꽃 피는 문화, 충분한 공원과 여가 공간, 복지와 스포츠 인프라 구축, 안전 환경 조성 등 시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해왔습니다. 그 결과, 내륙 최대의 산업단지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이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로 변화하면서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Q 그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산업다각화’였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A 10년 전 구미공단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로 특화된 공장이었습니다. 소위 ‘잘 나가던 시절’이었지만, 구미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산업으로 특화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는 단 몇 가지가 아닌, 다양한 먹거리가 서로 얹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다각화’라는 이름 아래 구미공단의 맷집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차세대 ICT, 탄소섬유,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곳이었던 전자의료기기 업체는 지난해 30곳으로 증가했고, 향후 2020년에는 300곳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전장화 되는 추세인데, 그 핵심이 될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수가 200여 곳까지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 문을 연 ‘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도 IT전자, 광학, 디스플레이 분야의 30개 중소·벤처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출했고, 현재 100여 곳의 중소기업이 새롭게 진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증가가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2008년 179개였던 것이 2010년 215개, 2013년 305개로 증가했

고 지난달 말에는 401개까지 8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구미공단의 큰 약점이었던 연구개발 기능 부족이 상당부분 해결됐고, 중소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신제품으로 경기불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Q 구미공단의 내·외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A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규모 확장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산단 5곳이 자리 잡은 내륙 최대의 산업단지가 됐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곳까지 합하면 36.5km²(1,100만평)에 달합니다. 향후 '5단지'와 '확장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신소재, 태양광, 웨어러블 디바이스, IT의료융합, 3D융합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최첨단 친환경 산업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5단지는 '융복합 탄소성형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내 탄소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투자가 확정된 도레이 첨단소재의 경우 16만평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제가 단장을 맞아 경제협력단을 구성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CFK밸리(탄소산업 클러스터) 컨벤션에 참여해서 관련 산업 연구소 및 기업체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구미시를 아시아 탄소섬유 핵심 생산거점으로 만드는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또, 2006년에 출범해서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기업사랑본부'도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애로처리 실적 97%를 보이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구미에는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LG그룹의 1조5천억 원 대규모 투자 계획과 올해 웅진에너지의 1천억 원대 태양광 모듈 생산 계획 발표 등 10년간 투자유치 금액이 14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도시 전반의 활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Q 반면, 산업도시라는 오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도 애를 썼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A 산업도시하면 떠오르는 '굴뚝', '회색 연기'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취지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은 1년에 1백만 그루씩 10년 동안 총 1천만그루의 나무를 심자는 대장정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당초 목표를 넘겨 1천21만본(102%)을 심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덕분에 도시 곳곳이 푸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게 됐고, 올해부터는 제2의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구미를 '푸른 숲의 도시'로 탈바꿈 시킬 작정입니다. 이 밖에도, 2010년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탄소제로도시'를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대경권 유일의 기후변화 체험시설인 '구미시탄소제로교육관'을 개관했고, 2014년부터는 세계 최초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시내버스로 정식 운행하면서 대한민국 탄소제로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Q 그간 힘들었던 부분도 적지 않았겠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나?

A 불산 누출사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 9월 27일 추석을 앞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밤낮 없이 현장에서 공무원, 유관기관과 함께 수습 노력을 한 덕분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에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행정, 재정적으로 원활한 지원이 이뤄져서 사고발생 1년이 채 되지 전에 보상 등 모든 수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2013년 초 피해지역 주민 일동이 직접 감사패를 주신 것은 평생 동안 기억될 일입니다.

한편, 사상 초유의 사고였던 만큼 아픈 과거로 치부해 버리기 보다는 재발방지에 노력했습니다. 2013년 5월 1만2천명의 시민들과 함께 '구미시 범시민 안전실천 결의대회 및 선포식' 열고, 이를 기점으로 방범용 CCTV 대폭 확충,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도 최초로 내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Q 임기 동안 주민 혐오시설 유치 등 좀처럼 하기 힘든 일을 추진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A 환경자원화시설과 화장장이 순조롭게 추진됐습니다. 두 시설 모두 '넘비현상'의 대표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에서는 시민들과 많은 대화와 협의를 거쳐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은 2004년 12월 입지를 공개모집으로 신청 받아 지역 주민의 높은 동의를 얻은 산동면 백현리 일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07년 12월 착공해서 3년의 공사기간을 거쳤고,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소각시설 일평균 200톤 규모로 구축했습니다. 이후 20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립화장장은 지난 6월 25일 완공됐습니다.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7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립화장장이 자리한 곳은 옥성면 농소리로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고 화장로 5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자원화시설이나 화장장 같이 우리가 혐오시설이라 부르는 시설들은 삶의 질 차원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꺼리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누군가에 미루지 않고 내 임기 안에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Q 구미시의 미래상을 제시해보는다면?

A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 온 시책과 프로젝트들이 10년 시정의 연속성 속에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발전이 있었고, 시민 행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구미시는 그동안 변화해 온 여건을 발판 삼아 더 큰 도약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최근 완공된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시작으로 '낙동강 7경6락 리버사이드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번지점프 등 다양한

익스트림 레포츠시설이 낙동강 둔치를 따라 단계적으로 조성됩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여가생활이 더 다이나믹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와 WHO국제안전도시 공인 등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완공과 더불어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주변을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구미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흩어진 돌이 나중에는 서로 연결돼 하나로 생명력을 갖는 바둑처럼 구미시도 산업, 경제,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그간의 모든 성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와 희망을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인구 50만 시대를 준비하며 도시발전의 큰 축을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구미시는 작년 말 경쟁력 평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100만 규모의 도시보다도 더 경쟁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과거 구미가 굴뚝, 연기가 연상되는 회색 공업도시였다면 현재 구미는 탄탄한 산업에다 문화, 예술, 환경이 가미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시민들 모두가 내가 살고 있는 터전, 구미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선6기 시정도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취임 때 가졌던 열정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시민 약속사업을 잘 마무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서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 완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혁 기자

중장년층, 공무원시험 응시 증가

정년 보장, 노후 대비 등 이유로 인기직종 꼽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공무원이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재정적인 압박이 심한 4, 50대들이 공무원 연금, 신분 및 정년 보장, 각종 복지정책 등 이점을 갖춘 공무원직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9급 지방직 초임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봉급에다가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맞춤형 복지비까지 포함하면 2천 600만~2천700만 원 수준으로 잦은 야근이나 해고 압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때문에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지면서 중장년층에게도 공무원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으로 다가오고 있다.

연령대로 보면, 취업준비생의 40%가 공무원직을 준비한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4, 50대가 가장 높은 응시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0대 이상 9급 공무원 응시자 수는 2,924명이었으나, 다음해인 2011년 3,402명으로 증가하면서 2012년에는 4,446명, 2013년 7,984명에서 2014년에는 8,638명으로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총 8,817명으로 9,000명에 가까운 중장년층

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다.

금년도 9급 국가직 시험의 경우, 40대 응시자는 총 9,75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9% 증가했고, 50세 이상은 총 957명으로 지난해보다 24.6% 증가했다. 7급 국가직 시험의 역시 40대 지원자는 전년대비 13.8% 증가했고, 50대도 20.8% 증가했다.

특히 최근 공무원 시험 관련 ‘인강’(인터넷 강의) 시스템이 갈수록 발전되고 있어 현재 재직 중인 중장년층의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한 층 수월해지고 있어 중장년층 응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장년층의 공무원시험 응시가 증가하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층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한 취업준비생은 “가뜩이나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무원직에 쏠리고 있는데 중장년층까지 가세하면 청년들은 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공무원직을 준비하는 중장년층들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 가정을 책임지려면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는 것 같다”며, “공무원직 응시생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경쟁자가 아니라 경기 불황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우리나라 성인 비만 인구 비율 증가세 ‘뚱뚱해지는 대한민국’

바쁜 일상 속에 장시간 업무, 불규칙한 인스턴트 식사, 운동 부족 등을 방치하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경악하게 된다. 남들처럼 일하고 남들처럼 먹었을 뿐인데 체중계에 적힌 수치는 허용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비단 게으른 몇 몇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비만 인구 비율은 31.5%이며,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명 중 세 명은 이미 비만으로 체중 조절을 권고 받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식물성 지방 과다 섭취, 영양소 부족 등으로 인해 체내 균형이 깨지면서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30%는 ‘비만’

지난 7월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발간한 ‘NH 축경포커스’ 최신호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비만 인구 비율은 31.5%이다. 이는 10여 년 전인 2001년(30.3%)보다 1.2% 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가까운 일본의 비만 인구 비율보다도 6.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1인당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 역시 2001년 1천881kcal에서 2014년 2천63kcal로 10% 가까이 늘었다. 성인 하루 평균 권장 칼로리(2천kcal)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수치는 말 그대로 평균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칼로리를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건 외식 횟수가 늘면서 기름진 음식을 자주 접하게 된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식용유, 팜유 등으로 조리한 음식 종류가 크게 늘면서 2014년 기준 1인당 하루 평균 식물성 지방 공급량은 2001년(58.2g)보다 10g 이상 늘어난 68.59g이었고, 같은 기간 동물성 지방은 25.79에서 29.89으로 4g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운동 부족도 비만 부르는 주요인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일컫는 말



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열량이 몸을 움직이며 소비하는 열량 보다 많을 때 생기게 된다. 한 마디로 먹은 것보다 덜 움직이면 언제든 비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비만 인구가 증가한 것 역시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깊은 연관이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성인들에게 하루 평균 30분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절반 이상의 성인들이 하루 1km도 걷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슷한 예로, 중국도 최근 서구식 식습관 및 운동 부족으로 비만 인구가 9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비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살 빼기 캠프' 등 체중 감량 프로그램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10년 만에 건강 지침서를 개정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6천 보 이상 걷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고령, 저소득층 일수록 비만 위험 높아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령 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비만(Obesity in Korea 2015)'에 의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만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부비만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50세 이상은 50세 미만인 경우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가계소득에 따른 복부비만 유병률은 최하위층인 경우 26.1%이었으나 최상위층인 경우는 18.3%로, 최하위층이 최상위층에 비해 1.4배 높은 복부비만 유병률을 보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아동의 신체적 건강상태

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수준별로 건강수준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평가 결과, 차상위가구, 기초수급가구, 일반가구의 순서로 건강 수준이 낮게 평가됐고,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 역시 기초수급가구에서 평균 BMI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개인 혹은 자녀의 식생활에 무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불규칙적인 식사, 잦은 인스턴트 음식 섭취 등으로 인해 비만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만 비율 감소, 국가도 힘 쏟아야

이처럼 성인 비만 비율이 증가하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비만 비율 감소를 위한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올해 초 설탕세를 도입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공립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최근 당류 과잉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과도한 사회비용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국민 공동식생활 지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운동 권장, 설탕 줄이기 등 추가적인 정책 추진,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면서, "현대인의 과다 열량 섭취 원인에는 스트레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호진 기자

김대웅 서구청 교통행정 담당 “책임감이 공직자 제1의 덕목”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책임감이다. 자신의 업무 수행이 국가와 지자체를 대표할 뿐 아니라 주민 만족, 행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공직자가 되는 첫걸음은 업무 부서, 직책, 담당 업무 등을 떠나 자신이 맡은 업무를 중히 여길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김대웅 대구 서구청 교통행정 담당 역시 인터뷰에서 공무원이 갖춰야 할 자세 중 하나로 책임감을 꼽았다. 김대웅 계장은 “책임감이 공직자 제1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 항상 떳떳하게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웅 계장은 지난 1980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서구청 내에서 문화공보실, 의회, 총무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쌓아왔다. 크리스찬인 그는 정직, 성실이라는 업무 신조 아래 36여 년 동안 속한 부서에서 늘 최선을 다해왔다.

그의 성실한 업무 태도 덕분인지 업무 중 아내를 만나게 되는 행운도 얻었다. 1988년 총각 시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던 중 구청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백년가약을 맺게 되면서 업무에 한 층 더 매진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됐다. 당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던 탓에 처가 쪽의 반대도 있었으나, 김대웅 계장 특유의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결국 마음의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남들에게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그에게는 최고의 무기이자 공직 생활을 이어온 원동력인 셈이다.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익히 봐 온 팀원들은 김대웅 계장에게 종종 크고 작은 고민들을 털어놓는다. 김대웅 계장은 비록 자기 업무가 바쁠지라도 업무에 관한 조언부터 일상생활 속 고민까지 모두 경청한다.

부서장의 지시부터 막내 직원의 이야기까지 모두 듣고 소통하는 것 역시 팀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김대웅 계장은 “모든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려줄 순 없지만,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처럼 경청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그의 이러한 성품은 업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서구청 교통행정과는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구 내에 600건 이상의 진행대상이 있어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실수와 동시에 주민 민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김대웅 계장은 진행 상황, 전산 작업 등을 묵묵히, 그리고 세세하게 확인하고 있다.

김대웅 계장은 “교통과라고 하면 흔히 일 많은 부서, 민원 많은 부서로 알려져 기피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교통과 팀원들은 항상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자긍심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팀원들끼리 서로 다독여주고, 협동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 분들이나 주민들께서도 힘든 노고를 이해하고 응원해주신다면 훨씬 보람찬 공직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부탁했다.

이 혁 기자

혼인, 출생아수 사상 최저

‘비혼(非婚)’족 증가,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혼인,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5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6년부터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결혼 적령기 2~30대 여성의 경우, 취업 문제, 실질적인 복지정책 부족 등을 이유로 출산, 육아를 꺼리는 거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혼인, 출생아 수 감소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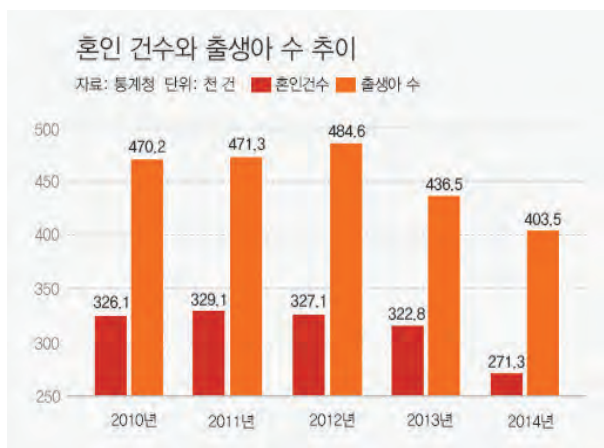


깊어지는 인구 감소의 늪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3만4천400명으로 1년 전보다 5.8% 감소했다. 이는 지난 5월 기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저치로, 출생아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혼인 건수는 8.6% 줄어든 2만5천500건으로 집계돼 역시 2000년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혼인 건수는 올해 들어 5월 까지를 합쳐도 총 2만4천1건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3%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이지원 인구동향과장은 “가임기 연령대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이로 인해 절대적인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혼 직장인 여성 38.3% “결혼 후 자녀 안 낳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혼자의 평균 자녀수는 1.8명이며, 미혼자의 경우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자녀수는 평균 1.1명으로, 출산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38.3%에 달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향후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절반(47.8%)가량이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답했으며 기업이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42.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직장인 여성들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저출산 정책에 5.4%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만족 비율이 2.9%, 30대 2.0%, 40대 6.4%, 50대 이상 20.0%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서는 직장여성들의 21.8%가 자녀 보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이 가장 큰 숙제

직장인 미혼 여성들의 경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51.4%)', '양육·주거비 등의 비용 지원(41.6%)', '가치관·인식 개선(7.0%)' 순으로 응답했다.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에 해당하는 정책 중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확대·개선(59.2%)' 사업이 출산율 제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4.5개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0%였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12.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반면 3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경우 40.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인 여성 M 씨는 "육아휴직제도 확대·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등 여러 지원 정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사의 눈치나 승진 시 불이익 등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임신, 육아 여성들을 '월급도둑'으로 인식하는 시선들이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출산율 높이기 팔 걷어

경북도 및 경북 지자체는 고령화 타파의 일환으로 출산율 제고를 주요 시책으로 삼아 출산율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30세 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또 출산장려 정책 하나로 둘째 아이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첫째 아이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등 5개 시·군도 도의 정책에 발 맞춰 지급키로 했고, 포항시, 군위군, 울릉군 등 3개 시·군은 기존 시·군 차원에서 주던 출산장려(축하)금에 10만 원을 추가해 지원한다.

더불어 결혼 적령기 남녀의 조기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에 거주하고 30세 전에 결혼하는 부부에게 결혼자금(3천만 원 한도)의 2% 이자를 1년간 대신 내주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북도는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출산율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도효진 기자

녹색환경도시 구미를 위한 정책제안



>>남유진 구미시장,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 수상

남유진 구미시장이 '2016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선정식에서 리더십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남유진 시장은 지난 7월 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구미시를 녹색환경도시로 변화시켜 산업도시 한계를 극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남 시장은 산업다각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을 새롭게 유치해 구미공단의 맏집을 키우고,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및 탄소저감 시책을 펼쳐 구미를 녹색환경도시로 변화시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남 시장은 "지난 10년간 함께 시정을 이끌어 준 43만 구미시민과 공직자들이 이룬 성과다. 앞으로도 '세계속의 명품도시' 완성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리더가 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녹색환경도시 구미를 위한 진행 사업

전국 최고의 전자공업도시라는 꿈을 실현한 구미시는 이제 회색도시의 오명을 벗고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구미시는 과거 녹색정책담당관실을 마련해 '탄소제로 시범도시'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문화 확산, 청정에너지 그린홈 100만 호 보급 확대, '자전거이용 친화 Zone' 지정·육성, '구미시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으며, 현재도 1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백서 발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추진, 농촌테마공원 조성, 자연과 함께하는 꿈나무 캠프 등 녹색환경도시 구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1970년 국가공단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뜬 후 국가경제를 견인해 오는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산업도시, 회색도시라는 오명을



감당해야만 했다. 하지만 산업도시, 회색도시라는 이미지로는 지속적인 도시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남유진 구미시장의 결단에 따라 도시 전체의 녹색화가 추진됐고, 결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남 시장은 민선 4기 출범직후인 2006년 7월, '살기좋은 구미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도심 곳곳을 사계절 꽃과 숲으로 어우러지도록 해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양,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일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지난 7월 28일 '1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 추진과정과 성과 등을 담은 백서도 발간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2010년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보험업체를 선정하고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농촌 주민과 도시민이 농촌 지역의 농업·농촌자원 가치와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보전·홍보·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구미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 10~16ha의 면적에 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을 들여 5개년 연차사업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농촌에 산재한 자원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해 낙후지역 활력소가 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꿈나무 캠프'는 지난 7월 25~26일 경북도 환경연수원에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개최돼 자연보호 다짐 티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구미시는



미래를 짚어질 꿈나무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녹색환경도시 구미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계획이다.

>>녹색환경도시 선진지 구미를 위한 정책제안

구미시는 이미 녹색환경도시로의 탈바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구미의 산업과 에너지·환경 관련 분야를 접목해 미래 산업과 신기술 발굴, 신성장동력을 창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꾸준히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경상북도와 연계한 합동 환경분야 정책 워크숍 실시, 국내·외 타 지자체 친환경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속가능한 녹색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구미시정 환경분야 성과평가 토론회'를 통한 구미시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세계 차 없는 날 참가 등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만의 논의가 아닌 전 세계의 이목이 '저탄소 녹색도시'에 집중되고 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금껏 다져온 구미시만의 특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저탄소 사회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들을 토대로 구미시는 미래의 핵심가치인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해서 녹색도시 확산을 이끌어 가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안은주 선임연구원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방식, 일정 확정 권영진 시장, 정부TF 3차 회의서 합의 이끌어내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방식 및 일정이 확정됐다.

추진방식은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되 군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민간공항은 국토부 사업으로 각각 추진해 동시에 이전을 완료하며, 건의서 평가, 조사용역 등을 거쳐 금년 내 이전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방식과 일정, 자원조달 방안 등에 합의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지시한지 꼭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일정이 확정됐다.

그간 2차례 열린 통합이전 TF회의에서 정부 주관부처인 국방부 및 국토부, 그리고 대구시가 사업 추진방식과 일정, 자원조달 방안 등에 있어 각기 상반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의견을 한데 모으지 못했으나, 이날 참석한 권영진 시장이 그간 결론을 내지 못한 여러 이슈들을 직접 정리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것.

먼저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당초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현 대구공항 부지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새로운 민항시설을 건설해 이전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구시는 합의안에 현 민항 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토교통부가 사업을 주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예산 부족 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공항 규모에 있어서도 대구공항을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하기로 해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추진일정은 금년 말까지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2017년 중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대구, 경북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우선 K-2 주변지역 24만여 명의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고도제한에 따른 막대한 개발피해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공항이 건설되는 경북 지역에도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 직접 지원사업비 3천억 원은 물론 대규모 군부대가 주둔함에 따라 약 1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돼 연간 약 5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으며, 통합공항 건설공사로 인해, 공사기간 동안 약 12조 원의 생산과 약 4조 원의 부가가치, 6만 3천여 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혁 기자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
공신력 있는 개발비용 검토기관
검토 통해 공정한 부과 이뤄져야



개발이익 환수법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오는 21일까지 해당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수령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으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완화, 두 번째 한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세 번째로 수도권 외 지역 산업단지 내 주택지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등이며, 시행규칙 개정(안)으로는 소규모 종교집회장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를 공고했다.

첫째, 경기활성화와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수도권 50%, 지방 면제)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은 감면 혜택이 없어 영세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특별·광역시와 도시지역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660㎡에서 1,000㎡로, 그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면적이 상향 조정된다. 또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비도시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도 1,650㎡에서 2,500㎡로 상향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조정(안)〉

주) 출처 : 국토교통부

구 분	특별·광역시 도시지역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비도시지역
현 행	660㎡	990㎡	1,650㎡	1,650㎡
변 경	1,000㎡	1,500㎡	2,500㎡	2,500㎡

둘째,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²⁾의 25%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있고, **환지방식**³⁾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개발사업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토지개발사업 시 발생한 개발이익을 **토지감보**⁴⁾ 등을 통해 회수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 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이중부과돼 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사업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진행 중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라목에 따른 ‘산업단지의 기능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용지조성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종류로 분류돼 있어 부과대상 여부에 논란이 야기돼 이를 삭제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500㎡미만의 소규모)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00㎡이상의 대규모)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두 시설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종교집회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35% 감소하고 징수금액은 350억 원 가량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민원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법이 1990년 3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되고 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 및 부동산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공정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보다 공익적인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로 인해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한 개발비용 산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개발비용 산정 기관을 통해 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개발비용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지현 수석연구원

■ 주석

- 1) 약칭 ‘개발부담금’이라 불리우며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사유재산화되므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환수)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 금액을 말하며 1990년 3월 1일 처음 시행되었다.
- 2) 개발사업이 끝난 뒤 지가에서 사업이 시작할 때 지가를 제한 후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행위 시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3)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 타인의 토지재산권을 강제적으로 교환,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에 의하는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후에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환지(토지)를 교부받는 방식
- 4) 토지감보 :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시행으로 수익을 얻은 토지수요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에 총당된 비용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부담해야 하는바, 이로 인해 사업의 시행 전 토지의 면적보다 시행 후의 환지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돼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용역계약은 ①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른 기술용역, ② 학문분야의 기초·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인 학술용역, ③ 그 밖의 용역인 일반용역으로 분류된다.

>>계약의 방법 -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持名)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의계약(隨意契約)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하면 ①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③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④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⑥ 특정연구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⑧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했음에도 해당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용역을 체결할 수 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또한,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계약 참가자격

수계약 대상자 자격 요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것 ③ 그 밖에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행위인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의 유형

수의계약의 유형은 크게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과 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분된다.

먼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이거나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결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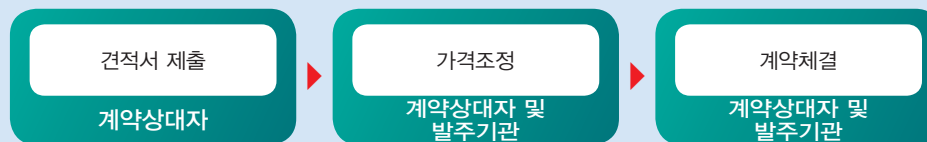
홍순대 편집장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원룸 비밀번호 노출, 범죄 위험



대구 대다수 원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가 문 옆에 고스란히 공개돼 있어 원룸 등 다세대 주택 보안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신축 원룸 대부분은 취약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현관 도어록을 설치하지만 낡은 이방인 출입을 막기는커녕 귀찮다는 이유로 등으로 비밀번호를 버젓이 적어둔 탓에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취재진이 수성구 내 원룸들을 다녀본 결과 현관문 틀이나 벽면, 심지어 도어락 위에 검은색 혹은 파랑색 매직으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이 '친절한 낙서'에는 도어락 비밀번호 앞뒤로 눌러야 하는 '#'이나 '*'같은 기능키를 '샵', '별표' 등으로 표기해 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원룸 거주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수성구 내 A원룸에 거주중인 한 거주자는 "사실상 동네 배달부와 택배 기사들은 대부분 원룸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거주민들과 배달원들의 편의를 위해 적어뒀다고는 하나 범죄에 악용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또한, 원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가 노출되면서 일부 여성 거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금품 절도에 이은 성범죄 위험까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

타지에서 올라와 혼자 원룸에 거주중인 A씨는 "가득이나 1층에 살고 있어 불안한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현관문을 들어올 때마다 범죄 걱정이 가시질 않는다"면서, "원룸이라 다른 보안장치가 완벽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놓고 출입이 가능하니 솔직히 좀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원룸 거주민들은 원룸주의 정기적인 비밀번호 교체, 경고 안내문 부착, 현관문 앞 CCTV 설치 등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개선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관문을 열고 생활하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원룸이 많다"면서, "이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범죄 예방을 위해 귀찮더라도 현관문을 꼭 닫고 비밀번호가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지우는 등 주민들의 보안의식이 확립돼야 한다"면서, "경찰 측에서도 원룸 여성범죄 취약지역 순찰, 경계를 강화하고자 '원룸 담당경찰관'을 지정, 범죄예방 홍보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므로 원룸 거주자 분들께서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최고의 맛이 최고의 홍보” 신짜오

본보는 ‘음식 명가’ 코너를 통해 고객과 독자의 입장, 맛, 서비스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로 지역 음식점을 알려 나가고 있다. 음식 명가는 매달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 및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신뢰성’, 서비스 제공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확신성’, 접근 가능성과 고객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평가 결과, 대구 수성구 수성못6길 20-6번지에 위치한 ‘신짜오’가 영예를 안았다.

대구 대표 명소인 수성못 주변에는 내로라하는 맛집들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남아 음식 전문점인 '신짜오'는 고급 식재료와 정직한 맛, 고풍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인테리어로 고객들의 발길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수성못 야경에 녹아든 은은한 분위기 속에 대표 메뉴인 쌀국수, 월남쌈부터 태국식 덮밥, 우리나라 입맛에 맞춘 매운 '쌀 짬뽕'까지 맛볼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최고의 만족을 선사한다. 덕분에 개업 15주년을 맞은 신짜오는 맛에 대한 자부심과 고객들의 신뢰를 등에 업고 수성구 대표 맛 집이라는 명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개업 15주년, 수성못 대표 맛집 '자리매김'

지난 2002년 8월 문을 연 신짜오는 개업 15주년을 맞은 대구 대표 동남아 음식 전문점이다. 대구 최고의 맛집들만 모여 있다는 수성못에서 그간 수많은 가게들이 생겨나고 없어졌지만, 신짜오는 '최고의 맛이 최고의 홍보'라는 소신 하나로 굳건히 버텼었다. 신짜오는 한때 쌀국수, 월남쌈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가게들과 다르게 맛의 기본부터 철저히 다져왔다. 우선, 베트남 현지인들을 직접 고용해 현지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려냈으며, 식당 외관은 동남아의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내부 인테리어는 고풍스럽게 꾸며 고객들의 눈과 입을 동시에 사로잡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접시에 담긴 음식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노라면 어느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다. 덕분에 분위기를 중시하는 젊은 여성들이나 커플들이 주 고객층을 이루고 있으며, 인터넷 블로그 상에서는 저녁에 꼭 가봐야 할 음식점으로 추천되고 있다.

현지 음식을 옮겨놓은 듯한 맛과 향

신짜오의 주메뉴는 베트남 쌀국수와 월남쌈이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쌀국수는 뉴질랜드 오타후후 지역에서 전수받은 기술과 신짜오 자체적으로 쌓은 10여 년간의 노하우가 결합된 경험의 산물이다. 육수는 인스턴트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각종 약재와 함께 24시간 끓이는 사골육수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술갈만 먹어도 진한 맛과 향이 입 안에 가득 퍼진다. 또한, 널리 알려져 있는 쇠고기 쌀국수 외에도 뉴질랜드 교민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해산물 쌀국수 역시 고객들이 즐겨 찾는 메뉴 중 하나다. 월남쌈도 일반 월남쌈 음식점과는 달리 풍부한 야채와 숯불로



초벌한 고기를 사용해 담백한 맛과 함께 특유의 스모크 향을 자랑한다. 이 외에도 동남아시아 사브사브인 스팀보트를 베트남 식과 싱가포르 식으로 함께 맛볼 수 있는 세트가 마련돼 있고, 태국 현지에서 직접 레스토랑을 운영한 경험을 살린 태국식 덮밥 '곰팡퐁커리 덮밥'을 비롯해 야끼볶음 칼국수, 간장새우, 후레쉬 롤, 하노이 치킨링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맛과 서비스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이미 맛과 분위기로 고객들에게 인정받은 신짜오의 다음 목표는 최고의 친절과 서비스다. 신짜오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인 청결과 인사는 물론이고, '고수'를 부담스러워하는 고객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해 대접하는 세심함, 어린이 세트를 마련해 가족 외식에도 신경 쓰는 등 다방면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맞추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끔 들어오는 컴플레인 역시 담당자가 직접 나서 즉각 대처하는 등 빈틈 없는 고객 만족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지하에는 파티룸을 조성해 대관도 진행하고 있는데, 5~60여명 수용 가능한 파티룸에서 식당과 차이 없이 동남아 스타일의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어 돌잔치, 행사 장소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신짜오는 "고객 만족을 위해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맛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원칙과 소신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맛이 최고의 홍보'라는 신조를 생각하며 대구 대표 맛집으로서의 명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달서구청 결혼장려팀

“결혼은 두려움이 아닌 행복입니다”



지난 7월 13일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신설된 달서구청 결혼장려팀은 갈수록 늦어지는 결혼 적령기 문제와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결혼 전반에 대한 교육, 정보,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혼 부부의 출산 장려보다는 결혼 적령기 남녀들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화 된 결과를 도출하기보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이달부터는 직접 시민 게릴라 인터뷰를 시행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전국 최초의 ‘결혼장려팀’

달서구청 결혼장려팀은 구청 여성가족과 소속으로 현재 김미자 여성가족과장의 지휘 아래 김순자 결혼장려팀장과 김선미 주무관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결혼장려 사업으로 실태조사, 인식개선, 만남, 결혼준비/결혼, 결혼생활 등 5개 분야에 대해 12개의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출산’보다는 ‘결혼’에 포커스를 맞춘 만큼, 기존 광역단위 지자체

에서 시행하던 미혼남녀 만남 등 일회성 행사보다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을 파악, 눈높이에 맞춘 해답을 찾는 등의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달서구청 미혼 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의 니즈를 파악했으며 내달부터는 대학생, 직장인, 예비부모, 기성세대 부모 등을 모아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직된 결혼장려팀은 시작부터 타 지자체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정착 팀원들은 '멘붕'에 빠졌다. 정해진 업무도, 벤치마킹할 사례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만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결혼정보회사의 노하우를 배워오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싱글 커뮤니티 개설도 추진하는 등 지자체 역량 내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있다.

특히, 신설된 직후 결혼적령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직접 전화해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줘서 너무 고맙다. 만남 프로그램에 아들을 참여시키고 싶다”며 직접 연락처를 남기는 등 지역 주민들의 호응, 참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순자 팀장은 “이번 리우 올림픽 남자 펜싱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고 되뇌었던 그 마음처럼 나 역시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 결혼 장려 붐을 일으키고 싶다”고 말했다.

‘자연스러운 만남’에 초점

결혼장려팀은 구청 내에서 ‘커플매니저’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늘 성공적인 미혼남녀 커플 매칭 방안을 구상하다 보니 주위에 서 정년퇴임 후 결혼주선업체를 운영해보자는 농담도 들려온다. 결혼장려팀이 미혼남녀 매칭 방안을 구상하는 건 좀 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 최대한 구청의 주선이 의식되지 않는 선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 느낌 그대로를 살리고자 노력한다. 특히, 남녀 간의 만남은 오히려 주위의 독려와 관심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남 단계부터 미션을 수행해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호감을 갖고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 지역 업체들과 연계해 할인 쿠폰 제공, 이색 미션 제공 및 보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결혼 장려의 시작은 인식 변화

결혼장려팀이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 중 하나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다. 따라서 결혼의 중요성만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과연 선택의 문제인가’에 초점을 맞춰 미혼 남녀들이 결혼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결혼장려팀의 목표다. 오늘



날 우리나라 미혼여성 가운데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10%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주구장창 독려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결혼장려팀은 자연스럽게 결혼 동기를 부여하고자 대학생, 미혼남녀, 커플, 부모 등 대상자별로 특화된 결혼 전략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가로막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작은 결혼식 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결혼장려 범추진 실무협의체 구성도 진행하고 있다.

“결혼장려팀, 전국에 확산되길”

김미자 여성가족과장은 “우리 결혼장려팀이 결혼 장려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지자체 한 구청 부서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례가 전국에 벤치마킹돼 각 지자체에 결혼장려팀이 신설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과 출산이 경제, 문화, 사회를 넘어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역량을 결집해 전국적인 결혼 장려 문화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자 팀장은 “우리 결혼장려팀을 비호 미혼남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서로 만들고 싶다”며, “결혼, 결혼 이후 생활을 지원하려면 재정적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부서에서 가장 최근에 결혼한 김선미 주무관은 “결혼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미혼 남녀들에게 막상 부딪혀보면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면서, “결혼은 두려움이 아닌 행복이다. 결혼장려팀에 속한 만큼 더 나은 결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호진 기자

리더십의 부정적 측면인 파괴적 리더십은 줄이거나 제거해야

지금까지의 리더십 관련 연구들은 리더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리더십도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수행됐으며, 이는 그 동안 긍정적인 줄 알았던 리더십의 유형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리더들의 행위가 좋은 의도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 리더십의 부정적 측면 또는 어두운 측면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부정적 리더십 유형이 바로 파괴적 리더십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리더가 존재하며, 그 결과 조직구성원의 개별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Liu et al.(2012)에 따르면, 아직까지 많은 리더들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부하직원들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일삼으며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흔히 파괴적 리더십을 카리스마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리스마는 대중을 심복시켜 따르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을 뜻하는 말로, 조직과 직원들을 위협해 억지로 따르게 하는 파괴적 리더십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파괴적 리더십의 가까운 예로 대기업 오너가의 3세대들 갑질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을 비춰봤을 때, 리더들의 비인격적인 행위와 언행은 구성원들의 생산성, 만족도, 그리고 조직충성도 등 조직유효성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파괴의 리더십은 조직의 단기적인 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직원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뿐더러 일에 대한 의욕까지 저하시킨다.

이 같은 점들을 미루어볼 때, 모든 리더들은 파괴적 리더십이 조직 및 부하들에게 긍정적 리더십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직의 성과 하락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열과 와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창조적 리더나 창의성 있는 리더 관리를 위해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훈련 등이 함께 제공돼야 한다.

더불어 직원들의 채용, 승진, 그리고 경력관리 등에 이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리더 스스로 경계해야 하며, 조직의 성과나 일의 결과에만 집중하는 리더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건설적 리더십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상황적 요인 중에서 상사의 권력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경우 조직·실무적 차원에서 권한위양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진구
경영저널 대표이사·발행인

성범죄 예방, 올바른 성인식이 해답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성폭력과 성희롱, 묻지마 식 성범죄, 공공장소에서 일반인들을 노리는 '몰카' 범죄까지 범죄의 범위와 정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범죄들의 주요인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 자극적인 성인물 범람 등이 꼽히고 있지만, 이러한 성범죄들이 꼬리를 무는 배경에는 잘못된 성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 및 성폭력 예방 상담사들은 성범죄 처벌 강화에 앞서 올바른 성인식 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성범죄의 실태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729건으로, 전년도 대비 30.4%가 증가했다. 1일 평균 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그중에서도 가장 급증하고 있는 건 이른바 '몰카' 범죄로, 총 119건이다. 몰카 범죄의 경우 피서지뿐만 아니라 화장실, 수영장 탈의실 등 일상생활에서 활개치고 있다. 또한, 폭력과 연계된 성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이 두 범죄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인데, 경찰 관계자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범죄 사유를 들어 보면 대부분 여성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 여성의 외면으로 인한 복수심 등 빠듯해진 성인식에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아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올바른 성인식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 성평등 지수 '낙제점'

성인식은 성(性)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인지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남녀 간의 양성평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고령일수록,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성평등 지수가 낮게 나타나 성차별 및 성범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성평등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지속적인 교육 및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을 한 결과, 대구의 성평등 지수는 69.3점으로 16개 시·도 중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보건과 교육·직업훈련은 각각 96.4점, 94.3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의사결정은 21.2점을 기록해 가장 낮았다. 그 결과 평균 69.3점으로 1~4등급까지의 성평등 지수 중 2013년에 이어 3등급을 받아 성평등 중하위 도시로 선정됐다. 경북은 4등급을 받아 성평등 꼴찌 도시로 뽑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성범죄 예방은 올바른 성인식부터

얼마 전 여성들을 공분케 했던 모 대학교 성희롱 카톡 사건, 모 공무원의 성희롱 발언 등은 사실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농담 혹은 희롱이 우리 사회에 암묵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남성 중심 사회문화가 만든 암묵적이고 집단적인 통념들이 만든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서 올바른 성인식 정립은 성범죄 예방의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홈페이지에 '양성평등 10계명'을 게시해 일상 속에서 지나칠 수 있는 성차별들을 바로 잡고 있

다. 더불어 인구보건협회 대구경북지회 홈페이지에서는 올바른 성인식을 위해 성인식 테스트와 성인지 감수성 테스트 등이 마련돼 있어 자신의 성인식을 체크해보고, 올바른 성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인식 정립, 사회적 교육 수반돼야

이처럼 우리 사회에 암묵적으로 뿌리내려져 있는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14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인 이상 고용 업체에 한하여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역 여성단체에서는 성범죄를 당했을 시 암수범죄로 묻어두지 않고 피해사실을 신고해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올바른 성인식 확립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재범방지교육인 '새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성범죄 예방 강화 사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양성이가 함께 존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양성평등 10계명〉

1.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2. '여자답게', '남자답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3. 직장에서 남자일, 여자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4. 남녀 모두 즐거운 회식 문화를 만듭니다.
5. 임신, 출산한 동료들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6. 집안일을 할 때는 함께 하고 함께 쉽니다.
7. 자녀는 부모가 함께 기릅니다.
8. 결혼 후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명의로 합니다.
9. 양가 부모님은 똑같이 예우해 드립니다.
10.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명절, 제사문화를 만듭니다.



김지연 선수 (골프)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이 목표예요”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싶어요”

14세, 중학교 1학년의 나이로 제22회 대구광역시장배 골프선수권 대회에서 여중부 우승을 차지한 김지연 양(영신중)은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유지한 채 당당히 자신의 목표를 밝혔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주니어골퍼 김지연 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골프를 시작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골프 꿈나무다. 그녀는 본래 성악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하게 됐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승부욕과 도전정신으로 타 스포츠를 접해온 김지연 양은 김형식 코치의 지도 아래 매일 새벽 5시 30분, 나인홀 라운딩과 웨이트 등으로 훈련을 시작해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레슨과 체력훈련을 견뎌냈고, 덕분에 골프 실력은 날로 성장해 갔다. 그와 함께 대구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퍼가 되겠다는 꿈도 함께 키워나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JPGA 골프아카데미배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미국 브릿지스톤 스프링시리즈에서도 우승을 거둬 캘리포니아 대회 출전 시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 교내 동기와 선배들을 제치고 박카스배 전국소년체전에 대구광역시 대표로 출전해 활약하기도 했다.

김지연 양은 수많은 훈련과 경기 경험 중에서도 최근 우승한 대구광역시장배 골프선수권대회와 지난 4월에 열린 대한골프협회 주관 제주도지사배 대회를 최고의 경험으로 꼽았다. 스트레스와 악천후 등을 이겨내고 성과를 일궈낸 대회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5, 26일 양일간 대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구광역시장배 골프선수권대회에서 김지연 양은 쟁쟁한 선배, 동기들을 제치고 이틀 합계 2언더파 142타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둬 참가자 및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지연 양은 “꼭 우승



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지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오라골프클럽에서 열린 제주도지사배 대회에서도 값진 경험을 쌓았다. 김지연 양은 첫 라운드에 1언더파(7타)로 4등을 기록했다. 3등 안에 들어야 우리나라 아마추어 시합 시드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둘째 날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둘째 날은 거센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라운드를 장악했다. 악천후로 인해 중간 중간 경기가 멈추는 등 일정 이 지연돼 평균 5시간 정도 걸리는 경기가 8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보는 이들도, 선수들도 더없이 지쳐가는 상황이었다. 김지연 양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들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마지막 홀에서 김지연 양은 승부를 결정지을 3m 퍼팅만을 남겨두게 됐다. 실수할 시 7위까지 밀려나게 되는 아찔한 상황.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김지연 양은 퍼팅을 무사히 마무리 지으며 합계 144타로 3위를 확정지었고, 시드권도 확보하게 됐다.

김지연 양은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국가 상비군 발탁,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등 자신의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김지연 양은 “특기인 드라이브 샷을 더 연마하고, 여러 기술과 경험들을 체득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혁 기자

아임 드론

“‘팔방미인’ 드론의 매력 느껴보세요”



차세대 미디어 촬영 매체로 자리매김한 드론은 아이들 장난감, 중장년층의 새로운 취미생활, 레이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팔방미인이다. 하지만 남녀노소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구 내에서 조작법을 배워보거나 체험해보려면 마땅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아임 드론’은 드론 판매와 더불어 드론 무료 체험과 조작법 교육, A/S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입문자용 드론부터 전문적인 촬영용 드론, 레이스용 드론까지 판매하고 있는 아임 드론은 드론의 진정한 매력을 알려 대구 드론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드론의 ‘A to Z’ 한 자리에

수성구 수성로70에 위치한 ‘아임 드론’은 드론 판매부터 조작 교육, 체험, A/S까지 실시하고 있는 드론 전문 매장이다. 책임감 있는 판매를 목표로 사업에 매진 중인 김상완 대표는 “드론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준 은인”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론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드론의 매력을 알리고 싶다는 그의 바람처럼 매장 내에는 입문자를 위한 몇 만 원대 저렴한 드론부터 전문가들을 위한 몇 백만 원대의 고가 드론까지 모두 한 자리에 진열돼 있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은 ‘팬텀4’로, 비행거리 5km, 고도 500m, UHD화질, 1200만 화소, 선회 비행 능력까지 갖춘 뛰어난 스펙을 자랑하면서도 조작이 쉬운 편이라 일반인들의 구매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아임 드론에는 드론을 처음 접하는 고객들을 위해 무료 체



험 공간까지 마련돼 있다. 매장 또한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폭넓게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퇴근한 직장인들까지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 덕분에 인터넷 블로그 상에서는 '대구 드론 = 아이م 드론'이라는 입소문이 돌고 있다.

호기심에 방문했다가 단골 고객으로

아임 드론에서 드론을 구매한 고객들은 대부분 단골 고객이 된다. 고객 수준에 맞는 드론 추천부터 조작법 교육, A/S까지 모두 제공되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방문했다가 무료 체험을 해보고 조작법 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취미 생활로 삼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입문용으로 드론을 시작해 고가의 전문 드론 운용을 목표로 하는 학생 고객들과 나만의 취미를 갖고 싶어 방문했다가 자녀와 함께 드론을 배우러 오는 중년층들은 아임 드론을 찾는 대표 단골들이다. 실제로, 아임 드론에서 드론을 구매한 후 드론 레이싱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고객도 있다. 많은 고객들이 단골이 될 수 있는 건 드론 초보들에게 문을 활짝 연 경영 방침이 한 몫한다. 아임 드론에서는 매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면서 드론에 대해 궁금한 점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으며, 입문용 드론이 고장 났을 시 1회에 한해 무상 A/S도 실시하고 있어 이제 막 드론을 시작한 초보들도 부담 없이 드론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드론을 손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대구 데이트 장소 소개 앱에서는 대구 이색 데이트



추천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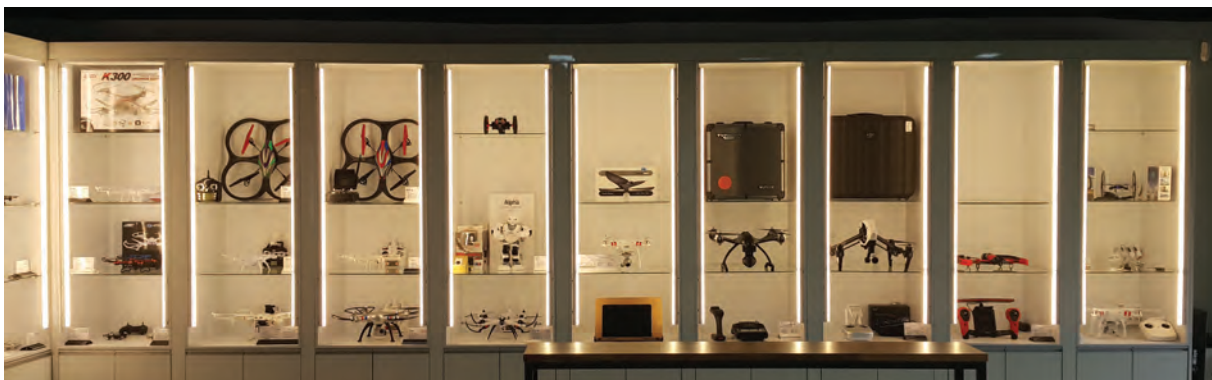
드론 교육 활동에도 중점

아임 드론은 판매 및 여러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드론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최고의 드론 전문 체험 학습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아임 드론은 현재 한국문화콘텐츠연구소와 업무제휴를 맺어 드론 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계명문화대학교에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해 드론 초급 조종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중학교와 방과후 과정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월에는 계성초등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위탁계약을 맺어 전국 최초로 정규 수업시간에 드론 교육을 편성시켰다.

아임 드론은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김상완 대표를 비롯한 전문 강사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교육 프로그램 편성, 기업과의 사업 연계에도 힘 쏟고 있다.

김상완 대표는 "드론은 단순한 놀이나 취미라기보다 미래 미디어 문화를 개척하는 한 장르"라면서 "장차 한국 기술계에도 큰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드론 교육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은 드론에 대한 대중들이 관심이 높아지는데 비해 즐길 수 있는 환경이나 취미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부족한 것 같다"며, "드론 문화 저변 확대를 통해 대구 시민 누구나 드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본보에서는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 정론’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경북 지역발전을 위해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은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과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재단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 결과, 이번 달에는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선정됐다.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리더는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으로 선정된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20년 이상 영남대학교 교수, 지역산업경제정책 및 기업지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재훈 원장은 “대구경북을 이끄는 100인에 선정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진정한 리더란 조직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나부터 부족한 부분을 갈고 닦아 정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선정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말처럼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2014년 경북테크노파크 6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재훈 원장은

지난 경력들을 밑거름 삼아 적소위대를 몸소 실천하며 전국 최초로 지역은행과 협업해 기술금융플러스 서비스를 시행, 기술경영컨설팅 304건과 금융연계지원 사업으로 투융자 204억원을 연계하는 성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지역산업진흥계획 성과부문에서 전국 1위인 S등급 획득, 경상북도 경영평가 A등급 획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한국산업대상 창조경영부문 수상, 메디컬융합소재사업 활성화 사업 선정 등 쾌거를 달성했다.

이재훈 원장은 “이러한 성과들은 나 혼자자 아닌 테크노파크 내 모든 직원들과 지역기업들이 함께 일궈낸 것”이라면서, “아직 성과에 도취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경북 경제상황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강소기업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한 덕목에 대해서는 “리더는 조직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자기희생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숭선수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인재등용과 소통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신경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선정될 100인들은 경북을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어떤 일이든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늘 지역에 대해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것들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면서, “직책이나 위치를 떠나 항상 마음속에는 대구경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고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경북도, 추석 中企 운전자금 3,200억 지원

기업 당 3억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3~5% 보전 방식

경북도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3,20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최근 경기침체와 수출 감소세 지속, 중국 경기 불안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 대내외적 불안 요인들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중소기업을 적기에 지원해 자금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총 8,004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5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추석자금을 포함해 연말까지 3,5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금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 자금으로 기업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북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 건설, 운수, 무역, 관광숙박, 자동차정비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일자리창

출 우수기업, 여성, 장애인기업, 신청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 등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업체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 원까지 융자지원 한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3%에서 5%를 1년간 경상북도와 시군이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통해 신청접수 받았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의 융자추천을 통해 추석 전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대출금리를 지난달 1일부터 연 2.7%에서 2.4%로 0.3%p 인하해 지원하고 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창업이나 사업장의 증, 개축,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증축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8년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저리로 융자 지원해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는 자금이다.

장상길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의 창업·성장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도효진 기자

대구시, 지방공기업 평가 최우수



대구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전반적인 경영개선 효과로 전년대비 6개 기관 중 4개 기관의 등급상향('나'→'가'등급 1개, '다'→'나'등급 3개)이 이뤄져 사실상 전국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 특히, 이번 실적평가에서는 고용안정, 안전관리 및 청년고용창출 등 정부 정책 지표가 추가로 반영됐다. 지난해 9월 25일 대구시 산하 전 공사·공단이 전국 최초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청년 고용을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호선 개통에 따른 승객수송인원 12.4% 증가(133,836천 명 → 150,462천 명)로 1인당 영업수익이 증가됐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71.2% 감소하는 등 경영성과와 경영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재정건전화 T/F팀을 구성해 각 분야별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 시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고, 역사, 열차, 터널의 공기질 개선을 통해 전년대비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 등 고객 만족



형 공기질 관리로 고객만족도 7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대구도시공사의 경우 토지 및 주택매각률이 99.8%에 달하고, 74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전년도에 이어 우수한 수준의 경영성과로 올해 1월 28일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업무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분양대금 등 연체 시 고객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율 감액 조정 등 수요자 중심의 업무를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환경공단은 한·중 환경기업 합자경영계약 체결 등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역 물산업 선도기관 기반을 구축했고, 하수처리수 재이용률(27.24%→30.72%) 향상, 처리수질, 하수처리원가 및 고객만족도 개선, 악취 발생 14개 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추진, 산업재해를 제로 달성 등 안정적인 시설운영으로 완벽한 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하수도특별회계는 원가절감 노력, 높은 하수처리효율 등으로 '나'등급(2위/7개)의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2015년도 10.9%의 요금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요금현실화율(79.78→83.35%)을 높였으며, 원가절감을 통해 영업수지를 개선(90.41→95.94%)해 '나'등급(3위/8개)을 받았다. 구본근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 산하 공기업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경영혁신 개선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발전과 공공서비스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혁 기자

더위도 한 풀 꺾여가는 9월, 한결 시원해진 바람과 함께 경북 도내 곳곳에서는 다양한 공연, 전시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도청 신청사가 있는 안동에서는 화려한 뮤지컬을 선보일 계획이고, 대구에서는 한-중 간 국제사진 전시전이 열린다. 또한, 구미와 경산에서는 각각 오케스트라와 호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지역문화발전과 도민들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이번 달에 열리는 공연, 전시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

브로드웨이 42번가

일 시 9월 8일(목) ~ 9월 11일(일)

장 소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문의전화 053)762-0000

매회 매진 행렬을 이어오며, 기립박수를 자아내는 명품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공연이 국내 초연 20주년을 맞아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화려하게 열린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뮤지컬의 본 고장 브로드웨이를 배경으로 무명의 뮤지컬 배우가 역경을 딛고 새로운 스타로 탄생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희로애락이 담긴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화려한 의상과 무대, 다이내믹한 탭댄스 등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브로드웨이 42번가의 해의 안무가인 레지나 알그렌의 지휘 아래 오리지널 공연 장면을 최초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여심을 사로잡는 '출리안 마쉬' 역에는 배우 송일국, 이종혁이, 프리마돈나 '도로시 브룩' 역은 김선경, 최정원이 맡았고, '폐기 소녀' 역에 임혜영, '빌리 로리' 역에 예녹 등 명품 연기로 정평 받은 배우들이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한편, 공연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며, 공연 시간은 8, 9일 오후 7시 30분, 10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 30분, 11일 오후 2시 등 총 5회 마련된다.



2016년 한·중 국제사진 교류전

일 시 9월 27일(화) ~ 10월 2일(일)

장 소 아양아트센터 아양갤러리

문의전화 053)230-3312

IPC(한국국제사진교류회)가 한국-중국 간 국제사진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동국 IPC 회장은 아양아트센터에서 양국의 사진 속 작품세계와 가치관, 미적 감각 등을 교류하고자 국제사진교류전시회를 마련한다.

지난 1999년 창립한 IPC(한국국제사진교류회)는 이미 14차례의 국제사진교류전(대만, 미얀마, 중국, 일본, 싱가포르)을 통해 민간외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국내 아름다운 비경을 카메라에 담아 국제간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중국 '현대섭영학회'를 우리나라로 초청해 이웃 나라 중국의 풍경을 사진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전시에서는 자연, 인물, 풍경 등을 다룬 다양한 작품들로 관객들에게 서정적이면서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서정기(교문) 작가를 비롯한 이혁숙(지도위원), 방동국(회장), 이인자, 박문수, 이재부, 노영이, 김나영, 김영배, 김혜순, 배추경, 강상원, 서진성, 조상제, 김성두, 김행란 작가 등이 참여한다.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일 시 9월 7일(수) 오후 7시 30분

장 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전화 054)480-4560

201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RPO)'가 창단 70주년을 맞았다. 오는 7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내한공연을 계획 중인 RPO는 런던 카도간 홀 정기 공연을 통해 영국 클래식 음악 저변이 확대에 앞장서 온 오케스트라로서, 이번 공연에서 영국 '국민 오케스트라'의 저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RPO는 '최대의 다수가 최고의 만족도로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음악을 만드는 것'이라는 제원칙에 걸맞게 구미 시민들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명곡들을 선보인다. 공연에서는 샤를 튀투아의 뒤를 잇는 젊은 영국지휘자 '알렉산드르 쉐리',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등 세계 제일의 실력자들이 멘델스존의 '핑갈의 동굴 서곡 b단조 Op. 26',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브람스의 '교향곡 4번 E단조 Op. 9' 등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RPO는 창단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외 투어로 몽뜨뢰와 그라나다 페스티벌, 전미 투어, 유럽 중부 투어, 중국을 거치는 극동 아시아 투어 등이 계획돼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구미에서의 공연을 앞두고 있어 명품 클래식 공연을 원하는 시민들의 예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6 김영임의 소리 '孝' - 경산

일 시 9월 10일(토) 오후 3시, 6시 30분

장 소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문의전화 1599-2005

지난 20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효를 주제로 공연해 온 명창 김영임이 올해도 어김없이 '김영임의 소리 '효''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주된 스토리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혼자 힘으로 키워낸 어머니에게 마음과는 달리 모진 말로 상처 준 딸이 자신의 딸을 보며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으로, 특히 모녀 간 관람이 많은 공연이다.

김영임의 소리 '효' 공연은 국내 최초로 국악에 드라마와 퍼포먼스를 가미한 뮤지컬 형식의 공연이며, 수많은 관객들에게 찬사를 이끌어낸 명품 공연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부터는 감동이 있는 드라마에 풍성함을 더해줄 오케스트라 음악, 시간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무대의 변화와 특수효과, 그 위에 수놓아지는 수목화,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공연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더불어 국악기와 오케스트라의 협연, 현재 대중음악의 흐름을 담은 색다른 합동무대들도 준비돼 있어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장주 도 행정부지사, 소통 현장토크 진행



지난달 8일 부임한 김장주 도 행정부지사가 같은 달 17일 도청 젊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新도청시대, 머리맞대 봅사-Day!’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주니어 포럼 회장단을 포함한 회원 약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각 분과위원회별로 그 동안 연구해온 신도청의 성공을 위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제안했으며, 현장토크장소인 치킨점에서는 시원한 맥주와 함께 도청이전 이후 젊은 직원들의 고민을 듣고, 미래비전에 대한 의견을 이어갔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미래일꾼인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나니 내가 기운을 듬뿍 받아간다”면서, “일선 현장의 가감 없는 목소리에 앞으로도 더욱 귀 기울여 우리 경북도가 일류 경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가보자”라고 말했다.

포항 해수욕장, 이용객 410만 명 돌파



연일 30도를 넘는 불타는 더위에 포항시 해수욕장도 제대로 불탔다.

지난 6월 7일 개장한 영일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6월 25일 일제히 개장한 5개소 해수욕장은 21일 폐장 후 집계한 결과 410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고온다습한 무더운 날씨로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했으며, 포항시 또한 해수욕장별로 다채로운 축제·행사를 열어 피서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나흘간 포항 밤하늘을 화려하게 빛낸 불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가장 많은 피서객들이 다녀간 영일대해수욕장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모래 썰매장, 전국 수상오토바이 챔피언십 대회와 영일만 요트대회를 개최해 불볕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줬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각종 축제 등을 통해 얻은 교훈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향후 해수욕장 활성화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찾아 선보일 것”이라며, “동해안 최고 피서지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청 최초 하트세이버 탄생



영주시청 최초의 ‘하트세이버(Heart Saver)’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영주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안종희 주무관으로, 마을잔치가 한창이던 단산면 구구2리 마을회관에서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자 평소 심폐소생술을 익혀온 구구보건진료소 안종희 주무관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안 주무관은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12일 하트세이버 대상자로 선정됐다.

안 주무관은 “영주시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했을 당연한 일로 칭찬을 받고 하트 세이버로 선정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관내 기관단체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릉군-서울시교육청, MOU 체결



지난달 13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최수일 울릉군수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독도교육 추진 강화 및 울릉도·독도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울릉군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생 탐방활동 및 교원 연수단 방문 협력 ▲교육여행,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협력 ▲서울시교육청은 울릉도 및 독도로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체험 활동 적극 권장 ▲전 국민 독도 밝기 운동 협력 등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나라사랑 및 세계평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상호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나, 지역개발사업 추진 기본협약



달성군은 지난달 5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김문오 달성군수, 이익수 나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군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본 기본협약 체결은 달성군과 나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달성군을 문화, 관광, 산업이 꽃피는 대구경북 남부권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고자 시행됐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역개발 구상 영역의 시행을 통해 우량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위해 나에는 그 동안 추진해 온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등 대구경북지역 내 개발사업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우선 추진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달성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할 계획이다.

청도군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저지 총력



청도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솔수염하늘소 지상(연막)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솔수염하늘소는 겨울철 소나무줄기내에서 유충으로 4월 하순부터 성충으로 탈피해 소나무 새순을 갉아먹는데, 이때 새순을 먹는 과정에서 솔수염하늘소 몸속에 기생하던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로 이동하게 되고, 소나무는 1~2달 이내에 고사하게 된다.

군은 솔수염하늘소가 활동하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청도읍, 매전면, 이서면 등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대하여 솔수염하늘소 방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가을방제를 앞두고 예년보다 빠른 이달 18일부터 항공예찰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사전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사목에 대한 GPS좌표를 확보 후 정밀 조사에 의거, 제거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반출 및 딸감으로 인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